



제42회

평신도 주일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I. 평신도주일 인사말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4
II. 평신도주일의 의의 / 최창환 총무	6
III. 설교자료	8
●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 조기형 감독	
● 함께할 때 아름답다 / 이규화 장로	
●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 김진열 장로	
IV. 예배자료	23
●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 예배문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31
● 평신도주일 성수방법	
● 평신도주일 성수 사례 / 아현교회	
VI.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38
VII.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40
VIII. 첨부자료(평신도주일 성수결과보고서)	42

발 행 일

2020년 4월 17일

발 행 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T. 02)399-4346~8 F. 02)399-4350
kmc.or.kr

편 집 인

총무 최창환 장로

비 매 품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2020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공포에 떨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 취소되고 개학이 연기되고 교회의 집회와 예배가 제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우리 감리회 모든 평신도단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크기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더욱 힘써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6월 첫 주로 정하여 지키는 평신도주일은 찾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말은 바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들 말하지만, 기도해 힘쓰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기뻐하는 감리회 평신도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감리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잣대이며 기준입니다. 그리

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기도만이 살길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주고 살길을 열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을 응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전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 응답이 아니라, 원하는 답을 받지 못했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희망의 감리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숫자보다, 교인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평신도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의 자부심이 있는 감리교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회적 책임과 이웃사랑에 앞장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최창환 장로
사회평신도국 총무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웃을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존 웨슬리의 후예답게 살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리회는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며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우리 감리회 평신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평신도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신앙 운동을 펼쳐 보려고 합니다.

정직은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거짓을 이기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직한 영으로 변화하는 평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삶의 거룩한 목적으로 삼고 이 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갈 때 한국 교회는 정결함을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42회 평신도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삶으로 본을 이루는 감리회의 자랑이자 거친 사회에 빛을 비추는 힘찬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굴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시편 51:10

조기형 감독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 총북연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51:10)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취임 후 내각을 구성할 때였습니다.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링컨은 그 이름을 듣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 서였습니다. 비서관은 링컨에게 “얼굴은 부모가 만들어 준 것인데, 어째서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기 때야 부모로부터 얼굴을 물려받는 것이 맞지만, 자라면서는 삶을 통하여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40대가 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삶에 대한 참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나이로 칠 때 장년에 이른, 제42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얼굴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 없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평신도 주일을 지켰던 1979년의 우리나라 상황은 서슬 퍼런 유신독재가 종말을 목전에 두고 가장 극심했던 때로서, 온갖 억압과 탄압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물론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을 옥죄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대다수는 유신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월례 조찬기도회를 열어서 집권세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심지어 1980년에 신군부세력이 쿠데타를 감행하고 초법적인 최고위 인사를 급조하였을 때, 감리교회를 포함한 교계에서는 그들을 위한 조찬기도회까지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죄악 된 행실이었습니다.

당시 교계의 대다수 지도자가 이러한 상황 인식 가운데 있었으니, 그들로부터 신앙의 인도를 받던 많은 평신도의 신앙은 그 기초부터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선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쟁취하였든 그 과정의 정당성을 묻지 않고 권력이 우선시 되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우리 감리교회 또한 크고 작은 권력을 중심으로 뭉치고 흩어지며 서로 반목하는 파행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평신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조직적인 가해자로 탈바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이때 감리회 사회평신도국에서 2020년의 주제를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으로 정하고 앞으로 감리교회 구성원들이 나아갈 바를 옳게 제시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갖기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예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종 마주하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시편 51편의 말씀은 어찌할 바 모르는 형편에 놓인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한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때에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큰 적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감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그의 모습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네와 별반 다른없는, 때로는 우리보다도 더 부족한 모습을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왕이 되면서 얻은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빼앗는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비유를(삼하 12:1~14) 통하여 다윗의 악행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발당한 다윗은 즉시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음을 시인합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범하긴 하였지만,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이를 방어하려 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의 죄악을 시인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진정 다윗의 훌륭함은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속히 돌이킴, 즉 참된 회개를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한 후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지위와 권세, 경제력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며 시편 51편의 애가를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참회하는 마음으로 통한의 노래를 부른 후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청원대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이전과 같이 여러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완전하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간직한 채 살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를 대변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저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를 범하였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돌이킴으로써 죄 사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품지 못하는 한계를 마주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결책을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화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단지 그 구원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전성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빌 6:12). 여기서 성화/완전에 이르는 것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살전 5:17)’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 개혁자인 동시에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다운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감리교인 된 우리는 성화/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단순한 마음의 기도’를 더욱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쉽게 실족하지 않는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 회복의 비결입니다.

마흔두 번째로 맞이하는 2020년도 평신도 주일은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감리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못한 지난날의 여러 허물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감리교회의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고 서로 반목했던 것들은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해는 우리 감리교회의 지도력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영성이 깊고 교회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교회 개혁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아닌,

깊은 영성과 기도를 쉬지 않는 정결함과 정직한 인격을 갖춘 분들을 지도자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일에 그 누구보다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인, 마흔두 차례의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영성과 지성을 쌓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할 때 아름답다 (아름다운 교회공동체)

전도서 4:9~12

이규화 장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역대회장
경기연회 안산서지방 꿈의교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
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
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
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9~12)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지인은 심란할 때 마
음을 집중하기 위해 동방교회가 가르친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호흡이 가지런해지고 무겁
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이 느껴진
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도 이런 따뜻함과 가벼움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첨단
기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소통이 요원해지고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만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
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각자
생각하는 것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에 갈등이 많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다행이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대상을 바라
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주장하면 어렵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렵
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면
쉽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면 쉽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
분쟁할 때도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라고 말씀합니다.

분쟁과 다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역할에 순종할 때 해결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사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더불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언제 가능할까요?

첫째,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짝지어 보내십니다(눅 10:1).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흠어져 사는 우리를 모아 교회의 평신도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해 부름 받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름 받은 그곳을 지금 마음 가운데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그곳은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그곳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눈높이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겸손한 제자로 살 때 가능합니다.

제자란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자칫하여 성취 중심의 사람이 되어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면 영적 자만에 갇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귀로 생각하고 보고 듣는 제자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공동체의 직분은 직급, 즉 계급이 아닙니다. 거룩한 직책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곳이 바로 소명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 말고 더 좋아 보이는 저곳을 향해 몸부림칠 때가 있습

니다. 주님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데 우리는 저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고뇌를 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참사람이 되고 우리의 독특한 인격과 성품이 형성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다시 말하면 사명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즉 그 고난이 신앙의 깊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소금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소금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맛을 냅니다. 아무리 작은 알갱이라도 소금은 그 맛을 냅니다.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던 소금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의 재료입니다. 소금은 나쁜 균을 소독해 줍니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해줍니다. 소금은 때로 과도하게 부풀어 있는 것의 숨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13). 여러분의 소금은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은 그 맛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 그 맛을 내십시오. 겸손한 소금 같은 제자가 되어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배려란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웃을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게 되며 사물을 보다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신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되어 금이 가고 한쪽이 깨진 못생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 주인은 이상하게도 물을 길어올 때 온전한 항아리가 아닌 깨진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에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왜 온전한 항아리도 많은데 물을 길어올 때 저를 사용하시나요? 전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항아리를 지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지나면서 주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항아리는 주인과 함께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와, 주인님. 어쩌면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었을까요?” “메마른 산길에서 깨진 너의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금이 간 너의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어. 그러니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모두를 살롬의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분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였습니다. 학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로 가득

한 바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아이가 바구니의 과일을 먹는 게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준비, 팡!” 달리기가 시작되었는데 학자의 예상과 달리,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렸습니다. 바구니에 도착한 아이들은 모두 함께 둘러앉아 키득 키득 웃으며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학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1등으로 도착하면 과일을 전부 먹을 수 있게 해준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니?”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우분트!”라고 합창하듯 외쳤습니다. 웃으며 과일을 한입 가득 넣은 한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혼자서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분트’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입니다.

노자의 ‘물이 갖는 7가지 덕목’을 소개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용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물 같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더불어 함께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의 소명으로 부름 받은 지체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한 몸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은 평신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히브리서 10:5~7

김진열 장로

교회학교전국연합회 역대회장
중부연회 일산서지방 신도제일교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10:5~7)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에는, 교회가 목회자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라고 하면 ‘목회자’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목회자만으로 교회를 대변할 수 없고, 대변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발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과 합력이 강력히 요청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요청이고 어떠한 방향의 합력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상기하고 평신도가 나아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행하는 모든 평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평신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딤후2:4, 딤후4:2)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밭과 논에 나가 최선을 다해 심고 뿌려야 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것이며, 그 영혼이 영생으로 향할 것인가, 멸망으로 향할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신도의 역할은 ‘살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고 지치게 하고 실족시키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둘째, 평신도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계 3:12, 왕상 7:21)

솔로몬의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야진, 보아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없는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둥의 역할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평신도는 이처럼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은 반듯해야 합니다. 구불구불하고 비뚤어진 것은 기둥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둥은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처럼 반듯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평신도가 이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육체적인 유혹들이 있

고, 미혹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정치적 손짓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어 믿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흔들림 없이 반듯하고 견고한 기둥으로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셋째,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히 11:5~7)

우리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흔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바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흔적)가 된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과 조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때 참 잘했구나. 우리의 결정과 헌신이 아름다웠구나!” 하며 두고두고 흐뭇해하고 자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분명히 다르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마음으로 더 행복한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평신도 기도주간

6월 1일(월) ~ 6월 6일(토)



김덕창 목사

남부연회 대전북지방 하늘꿈교회 담임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2020년 평신도 기도주간(6월 1일 ~ 6월 6일)에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6월 7일을 평신도 주일로 성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 주간에 올해의 주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시 51:10)’을 담은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목적은

첫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기 위해서입니다(마 6:33).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요 15:7). 개인 기도의 성과는 경건의 능력이고, 합심 기도의 성과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마 28:18~20).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헌신과 순종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며 선을 행하는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찰스 스필전)

“기도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이다”(클레멘트)

6.1 (월)

회개

참되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38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물질과 권력을 우상처럼 숭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불순종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며,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한다(존 번연)’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시편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니다.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진실한 자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모양으로 흘러갈지라도, 이 세대의 죄악을 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빛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죄악과 허물을 자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대한 책임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의 후대가 땅에서 강성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의 영 안에서 산다.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다
(조지 무러)’

6.3 (수)

성경

주님! 나에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8: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시편 107:9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6.4 (목)

은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을 걸으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폭력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몸과 은사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요로운 복을 주옵소서.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고 선행을 베풀며 사는 의인들이 하나님으로
부터는 공홀히 여김을 받으며, 천국에서는 하늘에 쌓은 보화로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웃 사랑의 척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횟수와 진지함
으로 결정된다’(A. W. 핑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쁨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에 순종하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
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낯은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목적에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오스왈드 챔버스)’

6.5 (금)

소망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로마서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온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박해를 받는 영혼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최후 승리와 영생의 복을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종들에게 천국의 상을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지혜의 은사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에 기꺼이 자원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함께하시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아침의 열쇠가 되고 저녁의 자물쇠가 되게 하라(매튜 헨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잠언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영혼과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복을 주셔서 인생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을 항상 즐거워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영혼과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 중심의 허탄한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섭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여,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찰스 스탠리)’

6.6 (토)

경영

평신도주일 공동예배문

사회자 : 장로 대표

* 입 레 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 계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사 회 자
* 경배 찬송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 계
* 말씀교독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다 함 계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계
* 삼위영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 계
오늘의 기도	권 사 중
* 성경봉독	집 사 중
	1. 시편 51:10	
	2. 전도서 4:9~12	
	3. 히브리서 10:5~7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설교자(평신도)	
	1.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	
	2. 함께할 때 아름답다(아름다운 교회공동체)	
	3.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합심기도	말 은 이
	1.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남선교회 회장)	
	2.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감리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선교회 회장)	
	3. 평신도 지도자와 복음증거를 위하여 (청장년선교회 회장)	
	4.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청년회 회장)	
* 봉 헌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 계
* 봉헌기도	말 은 이
교회소식	사 회 자
* 찬 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함 계
* 축 도	담임목사

* 표시한 곳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행사자료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 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가. 목 적

평신도주일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회의 특별 신앙실천운동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하고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며, 평신도단체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다. 평신도주일을 잘 성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평신도가 되도록 한다.

나. 방 법

- 1) '평신도주일' 광고를 2주 전에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전 교인에게 홍보한다.
- 2)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6.1~ 6.6)은 자료집에 수록한 "기도문"의 '말씀과 기도'를 참고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킨다.
- 3)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4) 신앙의 본이 되는 평신도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평신도상'을 세운다.

다.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러진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90%는 지방 평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며,
- ② 10%는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내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에 사용한다.

| 송금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4211
 우리은행 1005-201-023587
 농 협 1277-17-001024
| 예 금 주 | 기독교대한감리회

라.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한다.

- | 제출방법 |** ① 팩스(02-399-4350)
 ② e-mail : sa-pyeong@daum.net
 ③ 우편: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간	프로그램	방 법
개체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6/1(월)~6/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하며, •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기도한다.
	평신도주일 예배 6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고, •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 등) • 불우이웃돕기 물품전달식을 갖는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실천한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전단지 무료배부문의 ☎02)399-4346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회 ‘평신도재능기부은행’ (www.kmcgiftbank.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재능을 기부한다.
지방	전도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내 교회가 합동 노방전도 때 거리청소를 병행한다.
	평신도상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상, 전도상, 효자효부상 등을 선정하여 지방 연합행사 시 시상한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으로 미자립교회 개보수 재능기부사역을 실시한다.

평신도주일 성수 사례

6월 첫 주는 평신도주일

‘평신도 생일을 축하합니다’

평신도주일을 특별하게 보낸 아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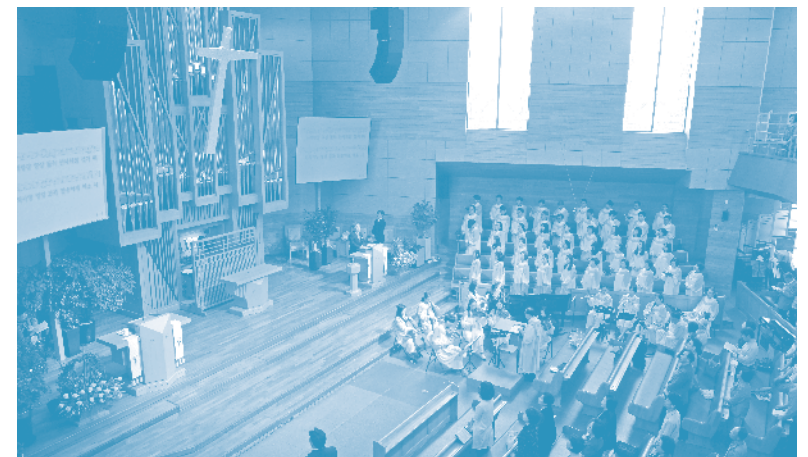
감리교회는 매년 6월 첫째 주를 평신도주일로 정하고 지켜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감리교회는 이날을 평신도주일 예배로 드리며 평신도들의 생일을 축하해 오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일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아현교회(담임 김형래 목사)는 특별한 평신도주일을 보냈다. 바로 축도를 제외한 사회, 기도, 설교 등 예배의 모든 부분을 평신도들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특정시간의 예배가 아닌 주일 1·2·3부와 젊은이(청년)예배, 주일오후예배 등 주일에 드러진 모든 예배의 순서를 평신도들이 담당했다.

1부 예배에서는 △집례 채규락 장로 △기도 배향희 권사 △말씀 문석진 장로(야곱의 세월), 2부에서는 △집례 전정현 장로 △기도 이명애 권사 △말씀 이상곤 장로(감사를 표현하면 기적을 만듭니다), 3부에서는 집례 진문옥 장로 △기도 정동덕 장로 △말씀 공부영 장로(내 달란트 찾기), 젊은이예배에서는 △기도 박현상 형제 △설교 강정구 장로(Passover), 주일오후예배는 △사회 장효례 장로 △설교 김기용 장로(한 걸음)가 순서를 맡았다.

3부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공부영 장로는 이날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 할 것을 당부했다. 공장로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 “또한 교회와 이웃,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아현교회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아현교회가 평신도주일을 특별히 지킨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평신도주일이 처음 제정됐던 초기 몇 년 동안 평신도들이 설교를 담당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전통은 잠시 잊혀 졌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이성호 장로는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평신도주일을 맞아 평신도설교를 요청하면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말한 뒤, “김형래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하신 후 처음 맞는 평신도주일이라 지난해처럼 드러질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목사님께서서는 흔쾌히 평신도들의 제안을 수락해 주셨다”고 전했다. 김형래 목사는 “평신도주일에 대한 감리교회의 전통과 배경을 알고 있었기에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면서 “감리교회 전통 중 하나인 평신도주일이 잘 성



수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주일에배 설교를 평신도들에게 맡기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현교회는 평신도주일에 대한 의미와 역사를 담은 내용을 사전에 교인들에게 유인물로 알리고, 또 임사자도 한달 전부터 미리 알려 거부감을 최소화 했다. 가장 우려스러워 하는 설교 내용 역시 설



평신도주일 설교 - 공부영 장로

교를 담당할 순서자들에게 믿고 맡겼다. 김형래 목사는 “설교 검토는 따로 하지 않았다”면서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그만큼 검증이 되신 분들이고 또 선교회 활동을 통해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해왔기에 목회자가 굳이 설교 내용을 검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목사는 “웨슬리는 속회를 통해 평신도들을 속장으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한국감리교회 선교 초기에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평신도들이 목회자 없이도 예배를 인도하며 신앙을 키우는 역할을 감당해왔다”고 설명한 뒤, “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만을 설교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장로님들의 간증이 담긴 삶의 이야기도 충분히 예배를 은혜롭고 풍성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형래 목사는 평신도주일을 맞아 아현교회를 찾은 사회평신도국 박은애 부장에게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사전모임을 제안했다. 김 목사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사전에 강습회를 하듯이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사전 모임을 통해 평신도주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을 마련한다면 개체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리교회는 지난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따라 매해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주일로, 그 주간을 평신도기도주간으로 지키고 있다. 사회평신도국(총무 최창환 총무)은 평신도주일을 맞아 자료집 및 기도문 리플렛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설교자료가 있다. 설교는 조기형 감독(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백삼현 장로(변화를 위한 우리의 결단), 이풍구 장로(주님 안에 거하는 평신도가 되자)가 맡았다. 또한 서승직 목사(새생교회)가 쓴 평신도 기도주간을 위한 기도문과 예배문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및 사례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등이 수록 돼 있다.

최창환 총무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멋진 감리교회를 만드는 평신도주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기독교타임즈 1301호] 2019년 6월 8일에 게재된 것으로 좋은 실천사례로 다시 실습니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평신도 재능기부운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즉 개인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 은사 등을 필요한 곳에 나눔으로써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운동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평신도의 재능 기부를 권면한다.

● 목 적

평신도 재능기부를 통해 국내외 선교 및 사회봉사 활동 등 평신도 사역을 활성화 하고, 감리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1. 재능기부자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필요한 곳에 연결한다.
2. 분야별로 조직화하고 평신도 리더를 세워 봉사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3.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능을 연결하여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다.
4.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에 감리교회 이름으로 참여하여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
5. 국내외 재능기부 시범 사업을 전개하여 선교에 적극 참여케 한다.

● 재능을 기부하면?

- 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능기부자로 활동하며, 재능을 기부하여 국내·외에 속한 교회,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선교지역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 ② 본부 사회평신도국은 재능기부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소식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기부한 재능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도록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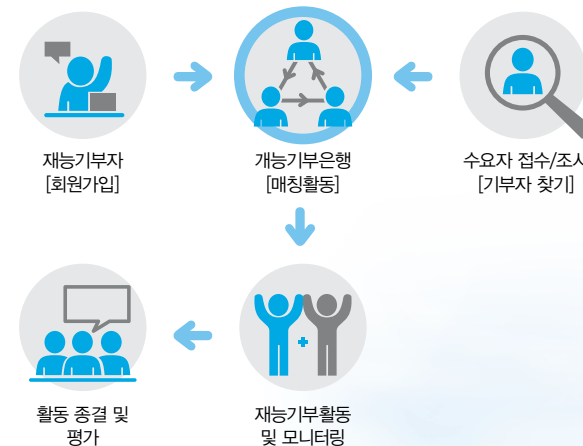
● 재능을 기부하려면?

- ① 홈페이지 :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 kmcgiftbank.or.kr 접속
⇒ ‘회원가입’ ⇒ ‘재능기부은행 등록하기’ 클릭
- ② 신청서 이메일 접수 : sa-pyeong@daum.net
• 신청서 다운로드 : www.kmc.or.kr / 사회평신도국 / 자료실
- ③ 전화 : 02.399.4349 / 팩스 : 02.399.4350
- ④ 우편 :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 재능기부를 받으려면?

재능기부은행 홈페이지 kmcgiftbank.or.kr에 접속 ⇒ ‘재능기부자’ 클릭 ⇒ ‘재능기부 받기’ 신청 ⇒ 적합한 재능기부자 연결

● 재능기부 활동 프로세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제42회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서 (I)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 목 : 2020년 제42회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서

1. 교회 현황

[illegible]

2. 교회별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구분	교회명	비고
낮 예배		
저녁(오후) 예배		
낮 예배+저녁(오후)예배		

연회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인)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서 (Ⅱ)

[지방 연합성회]

1. 일 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2. 장 소 :

3. 참여교회 : 지방 교회 수 _____ 교회, 참여 교회 수 _____ 교회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4. 현금총액 : _____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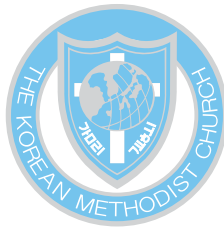
5. 연합 행사 내용

--

6. 기 타

연회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_____ (인)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